

1시간에 완성하는 대학 입시 면접 완벽 가이드

글의 목적

본 글의 내용은 실제 대학 입시 면접에서 **면접관**(interviewer)으로 참여한 입학사정관이나 대학교수님들의 경험과 개인적인 의견, 여러 대학의 공통적인 면접 기준 등을 바탕으로, 수험생들(**피면접자**, interviewee)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면접 경험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상 등의 내용들은 배제했으며, 실천에 적용하여 좋은 면접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와 함께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면접이란?

대학 입시에 있어 면접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입시 전형(수시나 정시)의 종류와 상관없이 면접을 학생 선발의 중요 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의 경우, 면접을 대학 입시를 위한 하나의 통과리레나 형식적인 대학 행정 행위 등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접은 지원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이며 특히 수시(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1차 서류 평가에 통과한 지원자들의 점수를 2차 면접 평가 시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 때 부여한 점수만으로 종합적인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면접을 통해 대학은 지원자의 인성과 가치관, 상식, 세계관, 창의성(이런 것들을 **기본 소양 평가**라고 합니다), 진학 열의(열정), 전공 적합도, 전공을 위한 준비 과정과 관련 지식 수준(**전공 적성 평가** 또는 **전공 적합성 평가**라고 합니다)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전공 내용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자질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을 양성하려는 대학교육의 목표와도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서 나열한 내용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각 대학마다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평가요소입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를 위한 모든 면접은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의 종류

대학 입시에서 면접은 일(한 명의 피면접자):다수(여러 명의 면접관), 또는 다수(피면접자):다수(면접관)의 구성으로 진행되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대 다수의 면접은 다수 대 다수의 방식보다 긴장감이나 스트레스의 요인이 더 높으며 실수를 하거나 감점 요인이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면접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 **인성**(가치관, 철학)과 **전공**(기초 학업 능력이나 전공 지식) 영역 평가가 함께 포함되나 지원 대학과 학과, 전형 유형에 따라 어느 한 쪽의 평가에 치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의/응답 방식은 보통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 1~2분 동안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거나(구술 면접) 칠판, 보드, 용지 등에 답변을 써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일 전에 기존의 피면접자나 선배, 또는 대학의 홈페이지나 안내 책자(기본적인 면접 정보를 대학에서 제공합니다) 등을 통해 위의 내용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면접 전 준비사항

1. 학생 생활 기록부의 이해

학생 생활 기록부(이하 학생부)는 지원자의 고교 생활 전부를 기록한 것으로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입시 자료입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학생부만이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면접 전, 기록된 자신의 학생부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학년말에 자신의 학생부 기록 내용을 살펴보고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를 정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항목에 따라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업 성적(교과 학습 발달 상황)

고교 학업 성적은 대학 입학 후, 기초 학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관이 학업 성적의 좋고 나쁜 것과 관련하여 직접 질문하는 경우(예를 들어 '지원자는 희망 학과에 입학하기에는 성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성적 향상 또는 하락, 특정 교과목의 성취도 등락이 있다면 면접관들은 그 원인(이유)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하려는

대학의 전공과 관련하여 고교 생활 중, 자신이 가장 열의를 쏟았거나 흥미가 있었던 과목과 그 이유, 관련된 비(非)교과 활동, 학업계획,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과정, 수상 내용, 간략한 포트폴리오(학습 플래너, 학업 계획서, 요약 노트 등을 의미하며 면접장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학업 성적과 관련된 질문들이 여기에 집중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원한 대학, 희망 학과에 입학하기에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스스로 판단될 때에는 자신의 기초 학업 능력을 적극 변론하는 것도 좋은 면접 요령입니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서 내신(또는 실제 수능 점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전공과 관련된 서적을 꾸준히 탐독해 기초 지식을 갖추었다는 점,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2) 진로 활동

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여기에는 진로활동 이외에 동아리나 독서, 자율활동(아래 항목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포함됩니다. 진로 활동(전공과 관련된 강연이나 교육 훈련 과정 참석, 현장 실습, 박물관이나 연구소 탐방, 대학과 관심 있는 학과 탐방, 대학생이나 교수님 또는 대학 관계자와의 상담, 전공 관련 자료 수집, 기타 전공 탐색 과정 등)은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 풍부할수록 좋으며, 학교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도 자신의 노력에 의한 개인적 활동, 자신의 역할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활동과 학습의 진정성이 중요하므로 면접관들은 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행한 진로 활동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 정리한 상태에서 면접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 계기, 활동 내용, 다른 참석자, 현장 분위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비교과 학습이 기록 누락 등으로 빈약하거나(면접관은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공과 뚜렷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고교 과정 동안 교과목 공부 이외의 활동 내용을 면접장에서 성실히, 사실 그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진로 활동이 지원자의 인성이나 가치관 형성, 진로에 대한 열정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질문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3) 동아리와 독서 활동

고교 시절 교내 외 동아리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면 동아리의 성격, 전체 구성 인원, 가입